

농업의 변화와 혁신
농협이 이끈다

〈5〉영농 경영비 절감

‘농민이 잘 되어야 농협도 잘된다.’ 농협 전남본부가 ‘1농협 1대표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다. 농협 전남본부는 지역 농·축협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사업을 지원하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고품질 농작물을 통해 농민들의 농업 소득을 높이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광주일보는 농업 현장을 찾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농협의 지원 활동, 희망찬 전남 농업·농촌의 미래를 모색한다.

일손 덜고 수확량 늘려준 명품쌀 모태

보성농협...벼 공동육묘장 운영

2025년까지 3차례 증설 과정을 500농가 15만여 종묘 공급
잡쌀·가루쌀 육묘 공급 영역 확대

국민 한 명이 먹는 하루 쌀 소비량은 152.9g(2024년).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즉석밥(210g) 한 개도 하루에 먹지 않는 수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래도 여전히 밥에 진심이고 ‘밥심’으로 사는 게 한국인이다. “밥은 하늘”이라고도 했다.

파종부터 수확·생산까지 무려 88번(米)의 농민 손이 들어가야 식탁에 오른다는 게 쌀이라고 하지 않은가. 한 해 농사이니 종자도 좋은 것을 쓰고 싶고 제대로 키워내 모내기를 하고 싶은 게 농민들 심정이다.

그런데, 우리 농촌은 88번의 손길을 줄 농민이 없다. 농번기철마다 농촌은 일손 부족으로 허덕인다. 일할 젊은이는 도심으로 떠나고 머물러 있는 농민들은 고령화가 심각하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라도 쓰려는데, 인건비는 매년 올라 애를 먹는다.

농민들이 모판을 만들고 흙을 담아 벼씨를 뿌린 뒤 싹을 틔워 12~13cm가량 키워내 논에다가 모내기를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다. 지난해 보성지역 벼 재배면적은 6870ha로, 전남에서 7번째로 많았다.

이 같은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보성농협이 지난 2021년 보성군 보성읍에 벼 공동육묘장을 조성했다.

보성농협은 지난 2023년까지 2차례의 증설과정을 거쳐 6553㎡(1982평)의 부지에 3개 온실(2305㎡)과 발아동(130.5㎡), 작업동(218.5㎡)을 갖췄다. 사흘 간 발아시켜 싹 트인 벼씨를 물을 뿌려주면서 튼튼하게 자라도록 경화 작업을 거쳐 키워내 논에 공급하는 게 보성농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이 공동육묘장 내 육묘온실에서 포즈를 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협 육묘장 역할이다.

“좋은 종자를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키워내 싹을 틔워 이앙 가능한 모로 키워내 공급하죠. 모판 제작 과정에서 병해충 예방을 위한 약제도 뿌려주는 서비스도 해주니 농민들이 좋아하죠.” 문병완 조합장은 농협이 농민들 노동력을 덜어주는데다, 우량 육묘로 수확량도 늘어나니 인기가 좋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문 조합장은 농협RPC전국협의회 회장이기도 하다.

4년 전만 해도 106개 농가에 2만 1177개 모판을 공급했지만 2년 만인 지난 2023년 350개 농가에 10만 4000개 모판을 보급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올해는 500농가에 무려 15만 1000개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농번기 철만 되면 바쁘다. 임정모 상임이사는 “4명의 직원들과 일용직을 포함해 20여명이 오전 7시부터 휴일 없이 모판을 날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찾았을 때도 농가에 공급할 모판이 육묘장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

수요가 늘면서 올해 2188평의 토지를 추가로 구입해 온실(660㎡)과 모를 튼튼하게 키워낼 경화장을 늘리는 계획도 진행중이다. 지금까지 시설 비용만 44억 2400만원이 들었다. 이렇게되면 1만 3785㎡(4170평)의 부지에 4개 온실과 발아동 등 5개 건물(3314㎡) 규모로 안정적 생산 기반을 갖추게 된다는 게 문 조합장 설명이다.

지역특산물인 보성 ‘웅치 올벼쌀’을 활용해 경쟁력을 높이면서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찰쌀, 가루쌀 육묘로도 공급 영역을 확대했다.

웅치 올벼쌀은 찰벼만을 사용, 전통방식의 가마솥에 수증기로 쪄 햇볕에 건조하고 현미로 도정한 쌀이다. 2010년도에 지리적 표시 제71호로 등록, 전국적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다.

문병완 조합장은 “벼농사는 무엇보다 모를 잘 키워야 한다. 보성농협이 우량 육묘 작업을 통해 튼튼한 모를 공급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생육 적응력 키워 병충해 방제력 강화

광주원예농협...과일·채소 육묘장

까다로운 육묘와 재배 분업화
704개 농가 493만주 모종 공급
수요 늘어 정부·지자체 도움 절실

종자를 구입해 플라스틱·종이로 만든 판(트레이)에 흙과 함께 심는 파종을 한다. 사흘 간 발아실에서 싹을 틔운 뒤 접목을 한다. 가느다란 식물 줄을 자르고, 잘린 두 식물 줄을 마주대고, 집게로 고정하는 작업으로,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접목 이후로 온도·습도가 맞는 활착실에서 6일 간 식물 줄 뿌리를 내리는 ‘활착’ 기간을 갖는다. 이어 온실에서 옮겨 물 주고 20일~60일 간 날씨에 적응력을 건강하게 키워내 농가에 공급한다.

광주원예농협이 육묘장에서 과일·채소 모종을 길러 농가에 보급하는 과정이다.

예부터 모종 농사가 ‘반농사’라고 하지 않는가. 자칫 실패라도 하면 한 해 농사를 망친다. 일손 부족으로 허덕이고 인건비도 매년 오르는데 농민들이 경험에 의존해 일일이 모종을 길러 옮겨심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수익을 내기란 쉽지 않다.

광주원예농협이 지난 1998년 담양군 월산면 2만 5935㎡ 부지에 육묘장을 조성하고 직접 육묘 공급에 나선 이유다.

광주원예농협 출범부터 현장을 지켜본 한상봉 상임이사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육묘와 재배를 분업화해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고품질·우량 모종을 안정적으로 보급해 농민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육묘장 조성이 추진됐다”고 했다.

고품질 모종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생기면서 농민들 수요는 갈수록 늘었다.

광주원예농협은 토마토·메론·수박·고추 등으



광주원예농협 정일기 조합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원예농협 육묘장에서 기르는 모종을 살펴보고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광주원예농협 제공>

로 키워내는 작물도 늘었다. 작물마다 재배 시기가 정해져 있고 농가가 옮겨심는 시기도 제각각인 점을 고려해 기존 온실(6150㎡) 외에 추가로 온실(1495㎡)을 조성했다.

전종영 광주원예농협 육묘장 장장은 “여름을 기준으로 토마토는 35~40일, 메론은 20일, 수박은 25일, 고추는 60일 가량 유야기를 보내다 농가로 보내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담양(445개 농가)·광산(135개 농가)·장성(65개 농가) 등 704개 농가에 공급한 모종도 493만 4000주에 달했다.

농민이 정식(모종을 밭에 심는 일)을 하는 시기에 맞춰 원하는 크기로 모종을 건강하게 성장시켜야 하는 만큼 물 주기, 날씨 변수까지 신경 쓸 게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한다. 허경원 경영기획팀장은 “성수기에는 직원을 4명과 일용직 인원 25명이 온 종일 뛰어들어도 시간이 빠듯하다”고 했다.

농협이 육묘 공급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민간

육묘장과도 가격 경쟁력도 생겼다. 농민 입장에서 원가를 산정하고 공급 가격을 정하는 원칙을 세우면서 자연스럽게 시장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민들로서 두 손 들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손익 분기점을 맞추기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게 농협의 고민이다.

육묘장 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유지비 등을 줄이기 위해 지중열 냉·난방시스템을 도입(2012년)하고 LED 활착실을 조성(2017년)하는 등 경영 절감에 안간힘을 쓰는 것도 무관하지 않다. 최근엔 농민들 수요가 많아지면서 육묘장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중이라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광주원예농협 정일기 조합장은 “농민들에게 육묘는 1년 농사의 성패가 달린 영농의 첫 걸음”이라며 “광주원예농협은 우량육묘를 생산·공급해 농업인 영농 소득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은행 전 영업점 9월까지 ‘무더위쉼터’ 운영

광주은행은 “오는 9월 30일까지 광주·전남·수도권 소재 광주은행 전 영업점에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광주은행은 지역 대표 은행으로서 최근 이상기후 등의 영향으로 폭염일수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발맞춰, 지역 무더위 취약계층이 쉬어갈 수 있도록 매년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이른 시기부터 시작된 폭염으로 무더위쉼터 운영 시점을 기존 대비 한 달가량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

광주은행 무더위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까지 운영되며, 방문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무더위쉼터는 냉방 시설과 더불어 부채를 제공해 지역민의 여름나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숙 광주은행 영업기획부장은 “폭염으로 인한 질병, 사고 등이 빈번해지는 등 폭염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민들의 쾌적한 여름나기를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018년 은행권 최초로 무더위쉼터를 시행하고, 매년 운영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 ‘암모니아 전소 버너 테스트베드’ 준공식

국내 최대 1MW 규모 시설 설비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지난 20일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국내 최대인 1MW(메가와트) 규모의 ‘암모니아 전소 버너 테스트베드’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암모니아 전소 버너 테스트베드는 향후 친환경 연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는 암모니아의 고효율·저배출 연소 기술을 검증하는 시험 설비다.

한전은 우리 나라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석탄 발전에 암모니아를 일정 비율 섞어 태우는 ‘혼소 발전’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준공한 테스트베드 설비가 암모니아를 활용한 친환경적 발전 기술의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테스트베드를 활용해 검증 및 확보한 기술들은 향후 암모니아 발전 실증 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향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 전

기로 물을 분해해 만든 청정수소를 대량 수입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 해외 생산지에서 수소를 암모니아로 전환한 뒤 국내로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암모니아의 다양한 활용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오는 2027년까지 석탄 발전소의 기동용 버너 32기를 암모니아 전소버너로 교체하고, 1000MW급 대형 발전소에서 암모니아 비율 20%에 해당하는 혼소 발전 실증을 본격 추진한다. 한전은 이를 통해 연간 100만여 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일주 한전 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테스트베드 준공 및 발전소 실증 사업은 국내 암모니아 연소 기술 상용화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친환경 발전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역대 최소 증가

전년비 15만 3000개 증가 그쳐

20~ 40대 감소·건설업 부진 영향

지난해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증가폭이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내수 부진 장기화된 데 따른 것으로 20대와 40대 등 젊은 세대의 임금 근로 일자리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90만2000개로 전년 대비 15만 3000개(0.8%) 증가했다. 이는 통계청이 임금 근로 일자리를 분기별로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 이래 최소 증가폭이다.

통계청이 정의한 ‘일자리’의 개념은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뜻하며, 같은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일자리를 점유할 경우 각각 집계되는 방식이다.

지난해 4분기 지속 일자리는 1509만 6000개, 다른 근로자로 대체된 일자리는 336만 2000개로 집계됐다. 또 기업체 생성 및 사업 확장 등으로 새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44만 4000개, 기업체 소멸 및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29만 2000개였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건

설업 일자리는 지난해 4분기 기준 189만 2000개로 1년 전보다 10만 9000개 감소했다. 이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같은 기간 ‘부동산 한파’로 인해 부동산 일자리 역시 9000개 줄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 일자리가 14만 8000개 줄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폐업한 자영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 40대에서도 8만 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20대와 40대 모두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면 고령층 재취업 프로그램 및 ‘인생 2막’ 지원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 일자리는 24만 8000개 증가했다. 이 밖에 30대(6만 7000개), 50대(7만 개) 등도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25.58 (+23.78)
↑ 코스닥	723.62 (+8.07)
↑ 금리(국고채 39년)	2.345 (+0.015)
↓ 환율(USD) (오후 4시 49분 기준)	1387.30 (-5.10)